

가자 휴전 위기...이스라엘 공습 일시 재개, 주민구호 중단

‘하마스 협정 위반’ 주장 무기고 등 수십곳 때리고 “휴전 이행 재개”
가자서 33명, 이스라엘군 2명 사망...하마스 “전쟁 재개하려 날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을 비난하며 가자지구 공습을 한동안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오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노골적인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테러에 활용되는 터널, 무기고 등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십건의 공격을 수행한 후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휴전 협정 이행을 다시 시작한다며 “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어떠한 위반에도 단

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1단계 휴전이 지난 10일 발효된 지 9일 만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날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라파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포병을 동원해 라파에서 공습을 수행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에 따라 이 지역에서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던 중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대전차 미사일 및 총기 공격을 받았으며, ‘중대한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이번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남부 전투에서 자국군 2명

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옐로라인(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철수선) 안에 있던 우리 군에 최소 3차례 발포한 것에 대응했다며 “추가로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 이후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회의 후 “가자지구의 테러 목표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성명에서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하마스는 휴전을 위반할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하마스가 변화하고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오만은 예상대로 우

리 안보에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완전히, 최대 전력으로 적대행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유로 가자로 향하는 인도적 지원 이송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당국자가 말했다.

전날에는 가자지구로 드나드는 주 관문인 이집트 점령 라파 검문소도 추후 공지 시까지 계속 폐쇄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약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가자 공습을 수행하기 전에 미 정부에 미리 알렸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가자 주민들을 상대로 한 하마스의 휴전 위반이 일방적임을 시사하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면서 공격이 이뤄지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러한 비난을 전면 부인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허위 비난은 이스라엘의 기만적인 선전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이스라엘은 살인, 납치, 구호 트럭 약탈, 민간인 대상 강도를 수행하는 범죄단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자금을 지원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이스라엘에 돌렸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려고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고위급 일원이 이자트 알리시크는 텔레그램에서 하마스가 휴전 협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범죄 정당화를 위해 근거없는 맥락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우리는 가자지구 전 지역에 걸친 휴전을 포함해 합의된 모든 것을 이행한다는 완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점령군”이 통제하는 라파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충돌은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전역에서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공동부검이 열리는 프놈펜 토크라사원에 안치될 앞에 현지 경찰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단지 고문 후 피살’ 韓 대학생 부검, 캄보디아서 시작

국과수 부검의 등...토크라 사원서 진행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수에 있는 토크라 사원 내부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시신 부검을 시작했다.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경찰 수사관 등 7명은 부검을 하기 위해 전날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토크라 사원에 도착한 뒤 부검 장비를 든 채 곧바로 시신 안치실로 이동했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시신 안치실 주변에는 포도 라인을 쳐 취해진 출입을 통제했으며 미리 도착한 현지 포렌식 경찰관 10여명이 부검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지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오늘 사원 내부에 경찰관 50명가량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양국 수사 당국은 이날 공동 부검으로 박씨 사인뿐만 아니라 장기 훼손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고, 결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

기관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은 곧바로 토크라 사원에서 화장되며 이후 유해도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8일 캄쭈트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명자국과 상처 등 심각한 고문 흔적이 옷몸에서 발견됐다. 캄보디아에서 박씨를 목격했다는 이들 중 일부는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타리카 노크한 한국 먹거리...첫 농식품 박람회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은 수도 산호세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 박람회를 열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코스타리카 문화청소년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협력으로 지난 17일에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10개의 한국 식품기업이 다양한 한국 먹거리를 소개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 1천여명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현지 바이어와의 연계와 수출 상담 지원을 통해 관련 한국 업계의 코스타리카 진출 기반도 조성했다.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는 “코스타리카 국



민들의 한식에 대한 애정과 비교해 아직 현지에 서 한국 식품품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박람회가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계란이 보물처럼 든 Gyeran-ppang” CNN ‘세계 50대 빵’ 선정

“계란빵 한 개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길거리 간식 중 하나인 계란빵이 미 CNN이 뽑은 ‘세계 50대 빵’ 중 하나로 포함됐다.

CNN은 18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서 계란빵을 영어로 ‘gyeran-ppang’으로 표기하면서 세계 50대 빵 중 하나로 선정했다.

CNN은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는 1인분 크기의 밀가루빵이라고 설명하고 “서울 거리에서 인기가 많은 간식으로, 아침 식사로 따뜻하게 먹거나

하루 중 다른 때 먹어도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계란빵 한 개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서 “햄, 치즈, 파슬리를 넣으면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풍미까지 더해져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한국의 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바게트, 이탈리아의 치아바타, 일본의 카레 빵, 멕시코의 토르티야, 미국의 비스킷 등 유명하고 익숙한 빵들이 CNN이 선정한 세계 50대 빵으로 뽑혔다.

CNN은 이번 목록이 “다양성을 반영한다”며 “이러한 빵에 담긴 기억에 남는 풍미, 독특한 재료, 상징적인 지위, 순수하고 편안한 즐거움에 따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